

테마칼럼

생명과 밥상

여성과 소비

교단일기

스토리텔링 파워



정창권

‘국민 영웅’ 김연아를 키운 스토리텔링

산업계나 서비스업계에선 이야기를 통해 상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이미지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대체 이야기가 어떤 힘을 지녔기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 열광하는 것일까? 우선 이야기는 인류의 오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서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우리의 어린 시절 할머니의 옛이야기, 부모님의 동화책 읽어주기, 유치원 선생님의 동화구연 등 거의 이야기가 가득 차있다. 나아가 어른이 되어서도 생활 속의 수다, TV의 드라마나 토크쇼,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 등 이야기에 빠져 살고 있다.

이야기는 가장 강력한 기억의 수단이다. 본래 인간의 기억 단위는 어휘나 문장이 아닌 이야기였다는 학설이 있다. 실제로 이야기는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기억하기에 아주 좋다. 특히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여 인식의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 상품 판매에 있어서도 품질이나 디자인, 서비스보다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한 구매 요소이다.

김연아 선수도 역시 한편으론 스토리텔링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김연아 선수에게 연습

장이 제대로 없어 피아니들과 같이 연습했다는 고생담이 없었다면, 국민 영웅의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이르러 스토리텔링이 다시금 부각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 IT산업의 발달로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그것들을 채워줄 내용물인 콘텐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융합된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시대, 특히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출시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야말로 ‘콘텐츠 전쟁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류의 오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던 스토리텔링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은 콘텐츠 제작과정 중 아이디어와 이야기 창작을 담당하는 핵심기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1세기는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 곧 감성사회로 스토리텔링이 문화콘텐츠 분야뿐 아니라 각종 산업계와 서비스업계 등 사회의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미래학연구소장 볼프 예센에 의하면 정보화 사회 이후에는 꿈과 감성을 기반으로 한 ‘드림 소사이어티’가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꿈과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가축과 토지가, 산업사회에서는 석유(탄)와 철광석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각각 생산이나 부가가치의 토대였다면, 21세기 드림 소사이어티에서는 감성이 가장 중요하며, 그 결과 인간의 감성을 가장 강력히 자극하는 이야기가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요즘은 평범한 상품보다 이야기가 있는 상품(ex : 에비앙, 비타민워터, 제이에스티나 등)이 훨씬 각광받고, 지식이나 정보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풀어서 전달해주는 작품들(ex : 신기한 스피클버스, 마법천자문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원래 스토리텔링은 문예학 용어였지만, 이젠 세상의 어느 곳에서나 폭넓게 쓰이고 있다. 특히 21세기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스토리텔링이 가장 강력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 스토리텔링은 제품의 품질이나 디자인보다 더욱 중요시될 전망이다.

〈고려대 교양교직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칼럼

소록도의 여름나기 - 오늘 참 따뜻했지요?



서달원

기나간 장마가 끝나니 연일 땀뻘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하죠?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내릴 때는 이 비가 언제 그치나 했었는데, 이제는 연일 땀뻘이니 시원한 소나기가 그리워집니다.

하루 두 번, 아침에는 환우 성당(2번지 성당)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직원 성당(1번지 성당)에서 미사가 봉헌됩니다. 그런데 미사 때마다 건네는 인사말은 두 가지 다릅니다. 환우들하고 미사 봉헌할 때는 ‘잘들 주무셨

습니까?’, 직원성당에서는 ‘오늘 하루 참 따뜻했지요?’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2번지 식구들은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하하에 드시는 약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복잡하지 않고 단조로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저녁에 깊이 잠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건네는 인사말도 ‘잘 주무셨는가?’입니다. 그리고 보면 저녁에 잠 잘 자는 것도 복인자 복입니다.

직원성당은 저녁에 미사가 봉헌되는데, 요즘은 연일 쨍는 듯한 날씨여서(특히나 고홍 쪽은 일조량이 많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저녁때쯤이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도 하루 일과를 기도 가운데 마감하러 성당을 향해 걸어오는 신자들의 발걸음을 보고 있으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니 모

를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위안과 용기를 주고 싶은 인사말은 ‘오늘 참 따뜻했지요?’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우리 몸의 온도를 높이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루의 끝자락에서 하나하나 펼쳐놓고 따져보고 누구 탓인가 분석해 보는 일들이 때로는 의미 있고 꼭 필요한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따져보고 펼쳐 버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뜨거운 것을 ‘따뜻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보듬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열(以熱治熱)이라는 말처럼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흘릴기

바람이나, 고마운 물 한 잔이 식혀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더워지니 2번지 환우분들 가운데는 물에 난 상처가 났다고, 붓가를 선선한 때도 잠 못 드는 날들이 많았는데 가족이나 무더위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걸으러 다 표현하지 않고 참고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생활 가운데는 어떤 때는 펼쳐버릴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수고로움, 짐들도 있습니다. 그 짐들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날씨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각자의 마음은 스스로 하기에 따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 쉽게 잡들지 못하는 하루하루, 소록도 환우들을 생각할이 시원한 한줄기 바람이기를, 시원한 물 한 잔이기를...

〈고흥 소록도성당 주임신부〉

기고

전남 발전 이끄는 여수엑스포



김응서

우리는 얼마 전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하는 감격을 안았다.

세 번째 도전 끝에 성공한, 동계올림픽 유치는 누가 보아도 감동적인 한편의 드라마였다. 유치가 확정된 이후 각 언론에서는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약 29조 원 정도라고 언급하면서 강원도가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전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인천공항 - 평창까지 68원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전철 건설에 약 3조 원 정도가 투자되고 경기도 광주 - 강원도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도 추진된다고 한다. SOC시설이 부족한 강원도로서는 평창 유치

로 인해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게 된 셈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계기로 2012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성공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우리는 2007년 11월을 되돌아 보게 된다. 우리 지역으로서 전남도 개도 이래 처음으로 유치한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모두가 박람회 유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안았다.

여수박람회 개최를 10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유치 무렵의 계획수상과 지금의 현실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돌이켜 보면 여수박람회를 유치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SOC 확충 문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천 - 완주 간 고속도로가 올해 4월에 개통되어 전남 동부권에서 전주, 수도권과의 거리를 1시간 정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았고, 30여 년이나 걸렸던 호남선 복선화에 비해 전라선 전철복선화는 10년 만에 완공을 눈앞에 두어 9월이면 KTX 운행이 시작된다.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가 박람회 개최에 맞추어 개통되지 못하게 된 점 등은 아쉽지만 4년여의 짧은 기간에 이만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명예가 걸린 세계박람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확충된 SOC 시설은 앞으로 여수 국가산단의 물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광양항을 비롯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서·남해안권개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박람회 때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특화시설, 전시·이벤트시설도 일정에 맞추어 착실하게 건설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중 박람회 개최 이후에도 남게 되는 국내 최대 규모 야구아리움과 해상무대·멀티미디어쇼 시설·해상분수구 꾸며질 빅오(Big-O) 등은 앞으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을 국제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각인시킬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여수박람회의 성공개회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가고 있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여수박람회 성공개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교통질서 확립, 시가지 청결, 친절하게 손님 맞는 일 등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이다.

범도민지원협의회는 광주·전남의 각계 각종 주요인사 610명으로 구성되어, 창립 목적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재원 때문에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우리 모두가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을 여수박람회 성공개회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박람회 개최지역 주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크고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고 쉬운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여수박람회는 반드시 성공하고 멋진 박람회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으로 생각한다.

“꿈이 있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고 했다. 전남발전의 견인차가 될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회를 위해 시·도민의 자발적인 홍보와 참여를 기대한다. 〈여수세계박람회 범도민지원협의회 회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치자금 소액 기부 문화 정착됐으면

우리는 그동안 방송과 신문지면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 불법수수, 음성적 정치자금 등의 말을 많이 들어왔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정치자금’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정도다. 하지만 정치자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정치는 건전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때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민 개개인이 작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정치자금을 기부하

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소액기부자인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 기부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 정당의 당원이 당헌·당규에 의해 금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이다.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당비나 후원금을 불가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정치자금을 후원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10만 원 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 ‘02-503-1114’로 문의하면 본인이 원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직접 기부하거나 정치자금 기부센터(www.give.go.kr)를 통해서 계좌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할 수도 있다. 앞으로 십 년 후, 백 년 후 우리의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정치에 십만 원을 버려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자.

▲조유리·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시설

‘막장’ 지방의원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차마 눈 뜨고는 볼 지경이다. 현직 도의원의 딸이 경력을 위조해 전남도 출연기관에 취직하는가 하면 화순군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군청 사무실에서 집단 난동을 부렸다. 이게 바로 올해로 성년을 맞은 지방의회의 현주소다.

전남도의회 의원인 딸인 A씨는 지난 2008년 도 산하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 공채로 입사하면서 근무하기도 않은 광주 DJ센터에서 7급 상당의 사무 전문직으로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 증명서와 자기 소개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위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최근 자살한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의 전 원장은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감당하기 힘든 강력한 인사청탁이 들어왔다’라는 글을 남겨 유력인사의 인사 압력이 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화순군의회 의원들의 막가파식 행동은 말문을 막하게 한다. 의장 등 의원 3명은 지난 20일 군 총무과 사무실에서 최근 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화순군의회는 얼마 전 한 의원이 술에 취해 당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방의원인지 조폭집단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들에게는 지위를 이용한 공직자 인사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지방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의에 반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되풀이하는 지방의원을 그대로 두고선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착할 수 없다. 이젠 주민의 힘으로 함량 미달의 의원들을 지방정기에서 퇴출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뿌리째 썩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이 짊어지게 된다.

여수박람회장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하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성 공사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2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박람회 개막을 불과 10개월 앞둔 시점인데다 노사간 타협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대외 준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람회장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19대 타워크레인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운영한 13대와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의 타워크레인노조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파업의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직위는 늦어도 9월 말~10월 초까지 박람회장 내 엑스포타운과 주제관, 국제관 등 주요 시설의 철골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파업으로 공사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됐다. 엑스포타운 건설에 투입된 12대의 크레인 중 파업 참여

노조원 7명을 제외하면 대체기사와 비노조원 8명만 작업에 참여하게 돼 일부 작업 중단 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여수박람회 시설 공사는 착공이 늦어져 개막 전까지 제대로 완공될 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정부 출연금 중 이월된 건설사업비만 549억 7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시간을 쪼개도 모자랄 판에 파업이 계속되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크레인 기사들이 벌이는 이번 파업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겠으나 여수 박람회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가적 대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크레인노조는 임금협상과 맞물린 어쩔 수 없는 파업이지만 박람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앙에선 협상을 하되 현지에선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설득력과 명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건설사 측과 관계기관 역시 건설현장이 멈춰선 현실을 직시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시급히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831년 영국 맨체스터 인근 브로스턴 다리가 갑자기 무너졌다. 군대가 발을 맞춰 다리 위를 행진했는데, 공포롭게 구보의 박자가 다리의 고유 진동수와 맞아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공진(共振)의 힘이다. 공진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진동수(주파수)가 그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것을 가르키는 말로, 진동수만 맞으면 에너지가 누적돼 흔들림이 커지는 현상이다.

공진현상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말미는 공진에 생기는 대표적 사례다. 자동차를 타면 엔진의 떨림이나 도로를 달릴때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누구나 몸이 떨리게 된다. 그런데 유독 속이 울

같은 랜드마크적인 복합 소품물이다. 소유주도 장충출신 백종원 회장이 이끄는 프라이프롭이다. 부동산개발체로 출발해 동아건설, 한글과컴퓨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업체를 인수하며 증권그룹으로 성장했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이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차회사 매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던 차에 저축은행 사태와 미스터리 같은 테크노마트 흔들림 사고까지 발생해 또 다시 위기에 처해 있다. 흔들림의 원인이 밝혀진만큼 프라이프롭도 흔들림 없이 위기를 헤쳐 나가지 않을까.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